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설치된 대형 태극기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독립운동가 간호사들 발자취 찾아 헌화 간협,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방문

대한간호협회가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아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발자취를 돌아봤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5월 15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아가 관람하고,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활동을 기록한 전시실 앞에 헌화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 전시관을 비롯해 중앙사, 12옥사, 11옥사, 공작사, 여옥사(女獄舍), 사형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과거 형무소의 모습을 복원해 우리 민족의 수난과 고통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옥사를 찾으면 8호 감방에 투옥됐던 유관순 열사와 함께 노순경 간호사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 간호사이자 노백린 장군의 딸인 노순경 간호사를 돕기 위해 면회를 온 스코필드 박사가 총독에게 여수감각들에 대한 부당 처우를 강력히 항의한 일화가 소개돼 있다.

훈정동 대표 앞 만세시위를 주도한 김효순(김순호) 간호사, 근우회 초대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정종명 간호사,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됐던 함귀래 간호사 등의 수형기록표를 볼 수 있다.

12옥사에서 열린 특별전(5. 2~5. 26)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아내' 코너에 단체 신채호 선생의 아내인 박자혜 간호사가 전시됐다. 박자혜 간호사는 '간우회'를 조직해 독립만세운동 동참을 주도한 인물이다.

역사관 관람 후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박경목 관장을 만나 환담했다. 대한간호협

회가 발간한 '한국간호역사 자료집(제1권 및 제2권)' '한국근대간호역사 화보집' '간호사의 항일구국운동'을 박경목 관장에게 전달했다.

신경림 회장은 "독립운동을 한 간호사 선배님들이 계셔서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간호협회는 2008년부터 간호역사뿌리찾기사업을 시작해 한국의 근대간호 역사자료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데 주력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독립운동을 한 간호사들을 발굴해 조사연구가 완료된 26명을 수록한 '간호사의 항일구국운동'을 발간했다"면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을 기리는 세미나 및 특별전시회를 지난 2월말 개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간호사들이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목 관장은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을 기억하기 위해 후배들이 이렇게 직접 찾아주시니 감사하다"면서 "간호협회가 역사 뿌리찾기사업을 해오고 있고,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을 기리는 세미나와 특별전시회를 개최한 것은 민간단체에서 참으로 큰 일을 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관람 안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찾을 수 있다. 관람시간 여름철(3~10월) 오전 9시30분~오후 6시, 겨울철(11~2월) 오전 9시30분~오후 5시(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3000원.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광주시간호사회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걷기

광주시간호사회(회장 이숙자)는 올해 제48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걷기" 행사를 5월 11일 광주 호수생태원에서 진행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각 산하단체 회장을 비롯해 기관 부서장, 병원간호사, 신입간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호수생태원을 돌아보며 자연생태계를 체험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숙자 회장은 "광주지역의 간호사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 기쁘다"면서 "바쁜 업무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제48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행사 모습

대전시간호사회 회원 어울림 한마당

대전시간호사회(회장 송용숙)는 올해 제48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행사로 '회원 어울림 한마당 및 특별공연'을 5월 16일 대전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650여명이 참석해 재능대회와 특별공연으로 다 같이 어울리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운권 추첨을 통해 회원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증정했다.

송용숙 회장은 "간호사는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있어 핵심인력이며,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은 환자안전 및 국민건강과 직결되므로



회원 어울림마당 및 특별공연 모습

울산시간호사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행사

울산시간호사회(회장 이경리)는 제48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행사를 5월 14일 개최했다. 회원 130명이 참석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 주제로 진행했다. 이는 국제간호협회(ICN)가 발표한 올해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이다.

1부에서는 울산지역 간호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김승연(울산과학대), 최은진(울산대), 김은아(춘해보건대) 학생이 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받았다.

2부에서는 회원들이 함께 모여



기념행사 모습

충남간호사회 회원 위한 힐링프로그램

충남간호사회(회장 임미림)는 올해 제48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회원 힐링프로그램"을 5월 15일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220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인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 슬로건 아래 회원 간 단합을 도모했다.

참석자들은 국립생태원을 돌아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힐링프로그램 모습

경기도간호사회 간호리더 정책워크숍

경기도간호사회(회장 김인자)는 '간호리더 정책워크숍'을 5월 15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개최했다.

경기도간호사회 임원, 시·군간호사회 회장 및 총무이사, 산하단체 경기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한국간호의 정책과제'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임미림 회장은 "몸과 마음이 모두 힐링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올해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모든 간호사들이 힘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주혜진 기자 hjoo@

독자주소 변경 ☎ 02) 2260-2571

김진을 경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선숙 간호부장은 "정확한 자기검진을 통해 유방암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여성의 유방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자기검진 교육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ilee@

부산시간호사회, 간호사 인식개선 홍보활동

도심 전광판 및 지역신문에 광고 게재



부산시간호사회(회장 황순연)는 제48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간호사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도심 LED 전광판 및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신문에 기고문을 실었다.

도심 광고는 부산의 핫플레이스 서면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부산동 지점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에 5월 한 달 게재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제작한 공익광고인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 및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영상이 상영됐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전광판 인종차 이벤트도 진행했다.

신문 전면광고는 부산일보(5월 10일)와 국제신문(5월 13일)에 게재됐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와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간호사 인식개선 포스터인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4종을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와 함께 실었다.

올해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Nurses: A Voice To Lead, Health For All)'이다.

신문 기고문은 부산일보 5월 9일자에 게재됐으며, '국제간호사의 날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며' 주제로 황순연 부산시간호사회장이 기고했다.

이진숙 기자 jilee@

여성건강간호학회 '연구·교육 발전 전략' 학술대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회장 김경임)는 제51회 춘계학술대회를 '여성건강간호 연구, 교육의 미래 발전 전략' 주제로 5월 17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조동숙·이은희 전임 회장이 여성건강간호학의 발전사와 미래 비전에 대해 강연했다. 장순복 초대 회장, 최의순·이경혜·박영숙 전임 회장과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메구미 하루나 일본 도쿄대 교수가 '일본 조산사의 간호교육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여성건강간호 연구방법의 이해' '가상현실 기반 간호중재의 이해' '새로운 교육기법과 적용 사례' '고위험산모관리'의 최신 진로지침 '산전간호를 위한 초음파검사의 이해'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경임 회장은 "여성건강간호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간 활발히 교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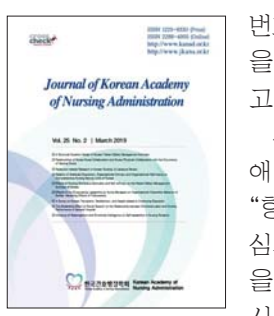
주혜진 기자 hjoo@

간호행정학회 학술지 SCOPUS 등재

한국간호행정학회(회장 서문경)는 간호행정학회지(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가 국제색인 SCOPUS 등재지로 선정됐으며, 2018년 24권 1호부터 등재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간호행정학회지는 1995년 2월 첫 발간을 시작으로 25년째 학술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연 5회 발간된다. 의학학분야 국내 논문 인용지수 1위, KCI 우수등재지로 선정된 바 있다.

논문투고 저자의 국제 표준식별 및 연결 정보 제공을 위한 ORCID



건국대병원 간호부 '존중 일터 구축' 선포식

건국대병원 간호부(병원장 황대용, 간호부장 오경미)는 존중 일터 구축을 위한 선포식을 5월 14일 개최했다.

'반(反) 괴롭힘 정책 선언문'을 낭독하며 선포식에 참석한 간호관리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공모를 통해 새롭게 제정된 간호부 미션·비전·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우수자에 선정된 직원들을 시상했다.

오경미 간호부장은 "건국대병원 간호부는 누구보다 앞장서 서로를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며 "앞으로 최상의 간호 실력을 위해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실천하며 원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ilee@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www.RNjob.or.kr ☎ 1522-1755



첫 한국인 졸업간호원 '이그레이스' 만나다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들이 수원박물관에 전시된 첫 한국인 졸업간호원 이그레이스를 만났다.

김미영 학장을 비롯한 간호대학 교수 8명이 5월 8일 수원박물관을 찾아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테마전 '수원여성의 독립운동' 전시를 관람했다.

이그레이스는 1908년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이화여대 간호대학 전신)를 김마르타와 함께 제1회로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의 졸업간호원이 된 인물이다. 보구여관과 평양 광혜여원 등에서 일했다. 수원 지역의 민

족운동가이며 삼일증고등학교 설립자인 이하영 목사와 결혼했다. 3·1운동으로 이하영 목사가 평양형무소에 투옥되자 수감 기간에 고난을 함께 한다는 뜻에서 줄곧 콩팥을 지어 자녀들과 함께 먹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전시회 도록에는 이그레이스와 김마르타, 한국 최초의 예모식,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 관련 기사, 이하영과 이그레이스 4점의 사진이 실렸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발간한 '한국근대간호역사 화보집'에 수록된 사진을 제공한 것이다. 전시는 6월 9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전시를 관람한 강숙정 부회장은 "한국인 최초의 졸업간호사가 된 이그레이스를 기리며 간호사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광주시간호사회 서서평 간호선교사 추모행사

광주시간호사회는 매년 서서평 간호선교사 추모행사를 열어 고인의 숭고한 삶과 업적을 기리고, 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하고 있다. 올해 추모행사에는 광주지역 12개 간호대학 학생들을 비롯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행사 후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숙자 회장은 간호법 제정에 대해 설명하고,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아노와 마가렛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했다.

이숙자 회장은 "서서평 간호선교사와 같은 선배 간호사들의 업적을 기리며 간호대학생 여러분들보다 앞으로 좋은 간호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유방암 자가검진 바로알기 대림성모병원 간호부

대림성모병원(병원장 김성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환자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유방암 자가검진 바로알기' 행사를 5월 15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간호부에서 주관했다. 혈압측정, 유방암 상담 및 교육 등을 진행했다.

유방암 자가검진 모형을 이용해 직접 촉진해보며 정확한 자가